

# 정치권 안팎서 부는 '조국 사퇴론'



### 靑 “답변드릴 위치 아냐...인사권자 대통령” “조직 유지 어려울 것...분위기 전환 필요”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 건과 관련,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 명의로 나온 '대국민 사과 논평'에 대해 "이 대변인이 논평의 성격에 대해 오늘 아침 분명하게 밝혔다"며 "그것으로 제 답을 갈음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변인은 2일 이번 공식 기강 해이 논란과 관련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도려내고 그 맞는 확실한 처방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되겠다"며 "일련의 사건들로 크게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잘못은 청와대가 하고 사과는 여당이 하는 모습이 어색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 대변인 측은 같은 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번 일을 계기로 적폐 청산과 공식기강확립을 확

고히 할 것이며, 같은 기조로 조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의 역할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수습했다.

여권 일각에서 조 수석 사임 주장과 관련, 촛불 민심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이른바 '조국 지키기'에 나선 데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사안에 관해서는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며 "야당에서 조 수석에 대한 문제, 경질을 요구하는데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의 거취가 정치권이 논란의 화두로 떠오르자, 4일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시선이 쏠린다. 청와대 공식 기강 해이 문제가 일제처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내부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게 나온다. 여권 관계지는 "이 상태로는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이 뉴질랜드로 향하는 기내 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은 일제 받지 않은 것도 현 내부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라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수석 경질에 소극적일 수 있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이른바 여권 내부에서 조 수석이 물러나면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 개혁 동력을 급격히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청와대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일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조 수석 염호에 나섰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제에서 국회의장 추최로 열린 초월회에서 문화상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여야 대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화상 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 민주·한국 “선거구제·예산안 연계 경악”...野 3당 “연계해야”

여야 5당 대표는 3일 선거제도 개혁과 2019년 예산안 처리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예산안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야 3당은 동시 처리를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낮 국회 사랑제에서 문화상 국회의장 추최로 열린 정례 오찬모임 '초월회'서 이 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여야 5당 대표는 3일 선거제도 개혁과 2019년 예산안 처리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예산안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야 3당은 동시 처리를 주장했다.

## 민주·한국당 “예산안 선거구제 연계, 국민 노할 것”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동시처리하자” 양당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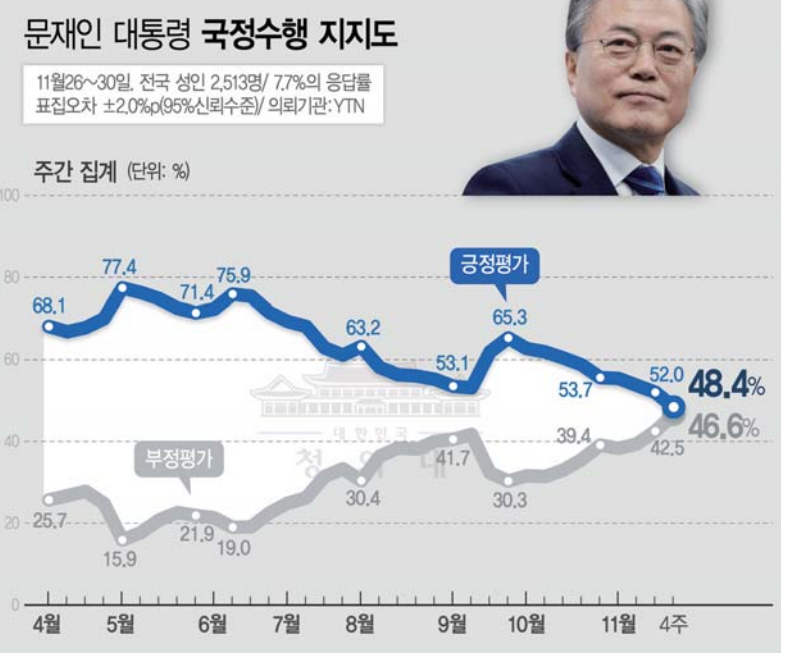
했다.

문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분회의 일정) 합의를 못 하면 난 한 명이 모이더라도 12시 정각(지정)에 분회의를 열어 원인을 상징한다"며 "원내대표 합의보다 우선하는 헌법이 있는데 국회가 그걸 못 지키면 얼마나 부끄럽나"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저녁까지 내년도 예산이 통과돼야 하는데 예산 통과를 못 하고 오늘 미주앉게 돼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너 유감스러운 것은 내년 예산안을 선거구제와 연계시켜서 통과 못 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야 3당을 비판했다.

그는 "여기 계신 당 대표들은 정말 내년 예산안을 선거구제와 연결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 달라"며 "국민이 이걸 알면 얼마나 노하시겠나. 어떻게 국민이 싸야 할 예산을 선거구제와 연결시킨다는 말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러도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키

## 문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48.4%...9주연속 하락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한 48.4%를 기록했다.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최근 청와대 공식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에 대한 비위 의혹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YTN 의뢰로 지난 달 26~30일 닷새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공개한 11월 4주차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7.7%)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8.4%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주 대비 3.8%p 빠진 수치다. 이는 9월 4주차 주간

집계(긍정 66.3%, 부정 30.3%) 이후 9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그동안 지지율은 16.9%p가 빠졌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가는 지난주 대비 4.1%p 증가한 46.6%(매우 잘못함 30.4%, 잘못함은 16.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0.9%p 감소한 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경기·인천, 충청권에서 하락세를 이뤘다. 또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 20대가 직업별로는 주부와 학생, 사무직, 자영업 등에서 고부 빠졌다. 이념별로는 정의당과 한국당 지지층, 중도층과 보수층 등에서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1주일 전 11월 3주차에서는 TK(대구·경북)과 PK(부산·경남), 60대 이상과 50대, 보수층, 자영업과 노동자를 포함한 7개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았는데, 지난 1주일일 경과하며 경기·인천, 주부와 무직, 중도층에서 추가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또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경기·인천, 60대 이상과 50대, 자영업과 주부, 무직, 보수층과 중도층 등에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리얼미터는 "두

달 전(9월 5주차 주간집계)에는 보수층에서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상회했다"고 했다.

다만 광주·전라(호남)와 서울, 대전·세종·충청(충청권), 40대와 30대, 20대, 사무직과 학생, 노동직,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하락세는 최근 청와대 기강 해이 문제가 연일 불거졌던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3일 51.3%를 기록한 지지율은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및 기강해이 보도가 이어진 26일에는 49.7%로 하락했다.

민주노동의 기업 인일 폭행 의혹이 일었던 27일은 48%를 보였으며, 한미 정상회담 소식이 있었던 28일에는 48.4%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적발 소식이 이어진 30일에는 48.1%로 내려앉았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 대비 1.2%p 하락한 38%를 기록, 9주 연속 하락하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궤를 같이했다. 자유한국당(26.4%), 정의당(7.8%), 바른미래당(6.6%), 민주평화당(2.6%) 순으로 민주당의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